

# 중국의 잎담배 생산 현황과 전망

조 천 준

KT&G 중앙연구원

“The Biggest in the World”는 중국의 담배 산업을 한 마디로 나타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1949년 10월 1일 건국되었으며 수도는 북경이고 국토면적은 960만 km<sup>2</sup> 로 세계 3위이며 인구는 약 13억 명으로 단연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와는 유사 이래 청일전쟁 때까지 수천 년을 선린 관계를 유지하다가 청일전쟁 이후 일제강점기와 동서 냉전시기 동안 약 100년간을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다. 1982년 8월 양국 국교 정상화 이후 현재는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홍콩에 이어 중국의 4대 교역 국가이다.

중국의 잎담배 생산량은 건국 이래 50배의 양적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에는 세계 제일의 잎담배 생산국이 되었다. 중국은 전 세계 담배 소비량의 30%, 잎담배의 46% 정도를 소비하는 그야말로 담배산업의 초대형 국가이다. 1949년 건국 이후 담배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담배세의 국가 재정기여도도 증가하여 현재는 세입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잎담배 생산 역시 담배 소비 증가에 따라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1998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담배 산업을 총괄하는 STMA(The State Tobacco Monopoly Administration, 國家烟草專賣局)의 발표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470만 건의 잎담배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재배 면적 100만 ha에서 약 170만 톤의 잎담배를 생산할 계획이다. STMA의 중점 지도 사항으로는 부상틀 육묘(floating seedling) 기술 보급(현재는 전국적으로 166,700ha에 달하고 있음. 云南省의 경우에는 전 재배면적의 38%를 부상틀 육묘로 하고 있음), 균형시비, 담배 회사별 자체 생산기지(bases)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01년산 잎담배 품질을 검사(12개 省에서 수집한 243개 표본을 심사)한 결과 5% 정도가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잎담배(담배)의 교역 규모는 담배 및 잎담배 수입이 각각 2.4%와 3.6%이고 담배 수출이 0.3%로 매우 미미하나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앞으로는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역시 더욱 치열해진 담배산업의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의 획득, 담배 품질의 세계화를 통한 수출 증대, 담배 회사들의 사업 다각화 및 과감한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